

강임준 군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구슬땀'

기재부 예산실 핵심간부들에 주요 사업 예산반영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이 폭염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주요 부처를 찾아다니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과 주요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재정부 방문은 내년도 국가예산 기재부 2차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쟁점사업 반영과 지역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폭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후속 연계 사업으로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와 국가 예산 반영에 대해 요청했다.

다음으로 중고차수출복합단지는 국내 유일 중고 승용·승합차와 중고 건설·농기계 및 특장차도 포함하여 추진되며 국가공인품질인증센터, 경매장, 정비·튜닝 시설 등 집적화 단지가 2022년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서는 최근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자동차대체부품은 전세계 판매량의 90% 이상이 대만에서 제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적기에 부품산업 국산화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에 잠식될 심각성에 대해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폭염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 주요 부처를 찾아다니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조하고 군산시가 대체부품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산에 소재한 한국GM 협력업체들이 대체부품산업 개발에 대거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이들의 축적된 보유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자동차대체부품산업의 국산화를 실현하겠다는 세부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일감창출형 (자동차)대체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의 적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축산악취저감 현장행정

남산면 대영농장, 함열 상지원 방문

정현을 익산시장이 축산악취저감의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29일 남산면에 위치한 대영농장을 방문해 축산악취저감의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농장주를 격려했다.

대영농장(대표 이병곤)은 양돈 3200두 규모로 액비저장조 1600톤, 액비순환

환시설 1000톤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대표는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냄새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8월 익산에서 최초로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리 분뇨를 미생물 처리로

발효액비화 한 후, 그 액비를 돈사 내

부로 유입하여 연속 순환함으로써 돈사악취를 저감하는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했다.

특히 수차례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농장에 맞는 액비순환시스템을 연구하여 축산분뇨 처리와 악취저감 해결을 모두 잡은 성공적인 시스템운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액비순환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가동된 후에는 돈사 내 악취감소로 인해 사료요구를 저감 및 출하일수 단축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약품비용, 분뇨처리비용 감소 등 경영비가 절감됐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대영농장처럼 가축분뇨처리와 악취 저감에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앞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익산의 양돈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2019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상지원을 방문해 농장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이번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고질적인 축산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해 상지원이 축산악취저감의 선도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참여기관 공개모집

아동친화도시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하반기 어린이 숲 체험 놀이교실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은 어린이들이 숲을 이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작년까지 1만3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어린이들의 감성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4월부터 6월까지 숲체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하반기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숲체험 놀이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청암산과 월명공원에서 관내 6~7세 어린이집·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와 함께 숲체험뿐만 아니라 미술활동, 자연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기관 신청대상은 군산시 소재 유아 보육·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이끌 전문가 양성

군산시, 8월 5일까지 수강생 모집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농촌체험관광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팜파티 플래너)을 양성한다.

29일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체험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농촌체험 팜파티 플래너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8월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팜파티'란 농장을 뜻하는 팜과 파티가 결합된 것으로 농장주와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직접 생산한 농산품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 농촌체험, 공연, 농산물 직거래 홍보 판매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팜파티 플래너'는 이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일체의 과정을 진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군산시 팜파티 플래너 양성교육은 오는 8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기간 중 7회32시간(이론 8시간, 실습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며, 농가에서 팜파티를 실제로 운영해보는 현장실습도 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문화 콘텐츠로서의 농업의 가치와 팜파티 스타일링 기획, 마케팅 이론교육과 SNS포토존 제작, 플로리스트 기초, 테이블

블세팅 등 스타일링 실습교육, 팜파티 실전 현장 실습 세부내용으로 나누어서 편성되었다.

팜파티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기획부터 현장 준비와 운영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32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사단법인 한국팜파티이벤트협회에서 발급하는 팜파티 플래너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교육생은 30명을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농촌체험, 교육농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농촌체험 여건을 갖추고 준비 중인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gunsanfarm.go.kr)를 참고하거나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063-454-523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농촌체험농장 기본 여건은 갖추어져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농장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며 "기존 농촌체험에 신선한 팜파티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군산시 농촌체험 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을 시장, 무더위 안전사고 대비 철저 주문

익산역 관광 안내데스크 이전 칭찬

정현을 익산시장이 29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익산역 관광 안내데스크 중앙통로 이전 설치와 관련해 칭찬하는 한편 수명장 등 여름철 안전사고 및 무더위 대책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정현을 시장이 지난 간부회의에서

익산역 관광 안내데스크가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담당부서인 문화관광산업과는 관광 안내데스크를 매표소 앞쪽 중앙통로로 이전 설치했다.

현재 관광 안내데스크에는 시 직원1명과 코레일 직원1명이 상주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원광대, 고교생 대상 진로체험캠프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LINC+사업단 지역선도센터 주관으로 고교생 대상 'LINC+ 진로체험캠프'를 최근 고대 프라미언 일대에서 개최했다.

고교생들의 진학 희망학과 수업 및 실습 체험을 통한 산학협력 진화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는 익산 남성고에서 240여 명이 참가했으며, 창의공학 캠프와 컴퓨터공학 사고력캠프로 나눠 진행됐다.

창의공학 캠프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융합공학과, 탄소융합공학과 교수들이 순환 체험활동을 진행했으며, 컴퓨터공학 사고력캠프는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와 융합교양대학 교수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oT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체험, 블록 코딩기술 습득 및 프로그램 구현 등을 진행한 가운데 캠프 종료 후 원광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전달됐다.

/익산=장인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